

尹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국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번째 민생토론회... “2026년까지 모든 초등생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재차 확인하며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 회의

를 주재하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여야 한다”며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재능기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방과 후 홀로 죽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학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무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현장 선생님들, 지역사회, 우리 학부모님들 이런 많은 분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던 데에서 공적인 ‘퍼블릭 케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전부 무죄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미전실 수뇌부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합계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적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울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김희재, 여수 3대 발전·20대 대표 공약 발표

여수시를 재선 도전

김희재 민주당 여수시를 예비후보는 5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여수시민들께 드리는 ‘3대 약속·20대 대표 공약’을 발표하고, “여수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여수시민들과 함께 ‘하나된 여수’, 여수의 발전을 향한 ‘담대한 도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추진, 경제복원과 민생 회복, 호남 대표 도시 여수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3대 약속과 ‘여수 대학병원, 순천 의과대학,



광양 강호대학 설립’, ‘여순 평화공원 유치’,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완공’,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SRT 전라선 증편 추진’,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지역분사제 추진’,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과 항공편 증편’ 등 20개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재 후보는 “일 잘하는,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의힘 39.8% vs 민주당 45.2%

리얼미터 조사 오차범위내 좁혀...尹 지지율 오른 37.3%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직전 조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양당 지지도 차이가 3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전문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9.8%로 직전 조사(25~26일)보다 3.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0.3%p 오른 45.2%로, 양당 지지

도 차이는 3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9.6%p ↑), 광주·전라(4.5%p ↑), 인천·경기(2.2%p ↑), 30대(12.0%p ↑), 40대(9.0%p ↑), 중도층(6.1%p ↑) 등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구·경북(10.1%p ↑), 대전·세종·충청(9.4%p ↑), 서울(3.2%p ↑), 광주·전라(2.4%p ↑), 진보층(6.2%p ↑)에서 올랐으나, 부산·울산·경남(10.2%p ↓), 30대(5.6%p ↓)에서는 하락했다. 녹색정의당은 1.1%p 내린 1.3%, 진보당은

1.2%p 하락한 1.2%, 기타 정당은 1.9%p 내린 5.5%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변동 폭은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오차범위 내인 0.6%p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였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p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1월 22~26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1.1%p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0.6%p 하락한 59.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박노원 “함평만 중심 해안관광 벨리 조성”

담양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

박노원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예비후보는 5일 ‘함평만 중심 해안관광 벨리 조성’을 함평 지역 공약으로 내놓고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함평만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관광 허브 조성을 위해 ▲해안도로·가로수길 조성 ▲함평 손불면 향구 중심 관광 클러스터 구축 ▲체합형 해양 스포츠 센터 신설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함평만 해안도로 및 가로수길은 영광-함평-무안을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주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박 후보 구상이다. 박 후보는 또 함평만 손불면에 위치한 주요 항구들에 대한 준설·정비 절차를 거쳐 해양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식당가, 지역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 등으로 조성하면 관광산업 메카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체험형 해양 스포츠 센터를 신설,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노원 후보는 “함평의 아름다운 해안과 자연 경관을 최대한 활용, 다양한 해양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면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내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일은 2023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